쯔즈끼보 - 방적 시설을 30만추 규모로 줄이고 다품종 생산체제로 점차 전환

쯔즈끼보(都築紡)는 그 동안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부터 타월뿐만 아니라 직물, 편물 등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내의 각 섬유 산지(産地)의 원사 수요가 줄어들어 부득이 시설규모를 줄이게 되었다.

그동안 일본 면방업계에서 곤도보(近藤紡)와 더불어 꿋꿋이 수입 면사와 맞서서 일본 면방업계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온 쯔즈끼보는 금년(2002년)에 들어서면서 현재 6개의 방적공장에서 39만추의 시설을 가동해 오고 있었는데, 금년 내에 약 30만추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약 8만여추는 줄일 계획이다. 삭감분의 약 절반은 면방적 시설이 될 것이며, 앞으로의 시설 규모는 면방기가 16만추를 약간 웃돌 것이며, 합섬방기 12만추, 소모방기 2만추의 구성이 될 것이다.

쯔즈끼보는 직영(直營)하고 있는 “후꾸이(福井)” 방적 공장의 4만추 시설로 26종의 실을 동시에 방적할 수 있는 다품종 생산체제로, 품종 교체 등에 따른 효율(效率)의 저하를 감안하여 80% 조업을 전제로 주문 생산품을 방적하고 있으며, 반면에 “이즈모(山雲)”공장은 타월용 원사인 20수 관사만으로 100% 완전 가동해 오고 있다.

한편 직기 대수는 당분간 약 1,000대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, 나머지는 모두 에어젯 직기들이다.

그 동안의 최고 시설규모와 비교하면 방직시설은 1/4, 제직시설은 1/3로 축소되어 생지 직물의 판매고가 높아졌는데, 이 생지 직물도 다품종 단납기 생산체제를 강화하여, 비축 원사로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은 “주문 받고 일주일

후 늦어도 2주일 후에는 출하할 수 있는 체제”로 되어 있다.